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⑫



▶한줄요약
암자의 화재를 조사 중인 현지 경찰은 시신 2구를 부검한 결과를 발표한다. 금어는 자상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자상의 도구로 쓰인 촛대에서는 금어의 아들인 이석원의 지문이 나왔다. 그리고 공양주 시신은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사망 원인은 자상, 도구인 촛대선 아들 지문이…

뉴델리에서 며칠 ①

-그 여잔 내가 구례 절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공양주였소이다. 내가 이곳으로 들어오니까 따라왔고, 이지안 금어가 아들과 들어오니까 그들의 수발을 들게 된 것이오.

-그렇군요.

그들은 지금 조사 중이니까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쩌고 하면서 돌아갔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날이 언제쯤…?

돌아가는 그들에게 살림을 담당하는 원주(院主)스님이 지객스님 곁에 있다가 물었다.

-일단 기본조사가 끝나야 합니다. 날이 더워 마냥 방치할 수 없으니 돌아가는 대로 병원 안치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세요.

그들이 돌아가고 나자 조실은 사람 인생 참 허망 타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그를 만나던 때가 언제였더라? 아마 선암사 주지로 있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 거기 40세 때 가야산 해인사 방장(方丈) 큰스님에게 출가했던 사미가 있었다. 늦은 출가였다. 어떻게 해서 늦깎이를 그 큰스님이 받아들였는지 몰랐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산을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선암사 주지로 오니까 거기 그가 있었다. 해인사 방장 큰스님을 뵈려고 갔을 때 만난 사람이었는데 선암사 지대방에 앉아 있었다. 다시 스님이 되겠다고 온 것이었다. 지대방 사람들이 그를 흘끗거리며 눈치를 보았다. 사실 출가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다. 대학도 나온 사람이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단청을 전공한 아내를 맞아 아내 나이 서른아홉에 늦둥이도 보았다. 아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병으로 죽고 말았다. 아내가 죽자 젖먹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머리를 깎아 버렸다. 그러나 그림이나 그리던 그는 산사 생활을 이겨낼 수 없었다.

산을 내려가 아들을 키우며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농사 역시 그림이나 그리던 그에게는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 아내를 향한 상념은 더욱 깊어졌고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절로 올랐다.

그를 받아들여 머리를 깎았다. 그런데 사미를 끝내고 비구가 되었어도 그림을 놓지 못하였다. 선방 하나를 내주었는데 참선은 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대중들이 그가 또 그림을 그린다고 하여 법당으로 가보면 밥상을 꺼내놓고 화선지에다 부처님을 그려대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사가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나무랐지만 그림을 놓지 않았다. 종이를 뺏어 버리면 나뭇잎에도 그리고 낙엽에도 그리고….

어느 날, 금어들이 탱화를 조성하려고 왔는데 그 모습을 멀거니 보고 있다가 금어들이 가자 그들을 따라가 버렸다. 그의 그림 실력을 보더니 고참 금어가 그러기는 했다.

-그림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저 비구 날 주오. 내가 데려가 금어로 일어서게 할 테니.

아마도 그가 그 말을 들었을지도 몰랐다.

조실이 그를 다시 만난 것은 현 종정 예하를 뵈러 갔을 때였다. 그와 헤어진 지도 벌써 20년은 족히 되었을 것이었다. 그때 지금의 종정 예하는 전계대화상이었다.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전계대화상이 삭발하고 화장하고 난리였다. 왜 그러느냐고 시자에게 물었더니 전계대화상의 근영을 그려주려고 금어가 와 있다고 하였다. 요즘 그 실력을 인정받아 최고 대우를 받는 금어라고 하였다. 잠시 후 금어가 들어왔는데 보니 바로 그였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반가웠다.

이곳으로 나올 때 그를 데려온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의 실력을 보고 천추사원의 부처님을 그릴 사람은 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조실이 일전에 찾아왔던 형사들을 또다시 만난 것은 이지안 금어와 공양주의 부검이 있던 날이었다. 경찰들은 예사 화재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다. 지객스님이 가끔 사건의 진척을 알려주었다. 부검이 시작됐다고 하였다. 부검하는 동안 수사진은 탐문 조사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경찰서 사람들이 그렸다는 그들의 몽타주를 지객스님이 가져왔는데 왜 몽타주를 그렸느냐고 물었더니 아마도 사라진 아들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하기야 아들이 떠난 후 그가 쓴 글을 보았더니 이상하기는 했다. 하지만 아들이 아비를? 그런 생각이 들면 고개가 내저어졌는데 형사들도 엉뚱한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사진이 없어 몽타주를 그렸다는 말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사라진 아들을 수배하기 위해 그린 모양인데….

그들의 몽타주를 보았더니 이지안 금어와 공양주 그리고 이지안 금어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다. 참 어설프게도 그려 놓았다.

이지안은 살았을 때 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얼굴이 봉(鳳)자를 연상시켰는데 하관이 벌어졌고 눈을 크게 그려 놓았다. 코가 뭉툭하고 입술이 칼날처럼 얇아 매우 이지적으로 보였다. 그 곁의 공양주는 이제 오십 대로 보였다. 먹물 법복을 입을 모습이었다. 얼굴이 동글고 눈이 금실금실했다. 콧등의 점도 붉어 보였고 입술 끝이 활처럼 휘어 사람 좋게 웃는 상이었다. 이지안 금어의 아들 이석원의 모습은 매우 날카로운 인상으로 그려져 있었다. 28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겉늙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눈이 가늘고 깊었다. 콧날이 오뚝하고 눈썹이 검었다. 입술이 얇고 턱이 각이 져서인지 성질께나 있어 보이는 인상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곳 스님들이 협조하지 않고 피하니까 가겟집 부부들 증언대로 그린 모양입니다.

가끔 형사를 만나러 가는 원주스님이 말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고 경찰서로 가 항의했더니 그날의 메모장 사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했다

-시체를 가르고 전기톱으로 머리뼈를 썰어 뇌를 꺼내고 혈액 꺼내고 내장 꺼내고….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육안으로 못 잡아내는 걸 잡아내야 하니….

사건이 난 지 꼭 5주 후에야 부검 결과가 나왔다. 보통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것이 밝혀진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 부검이 길어졌다고 하였다.

-부검 결과는 예상했던 대롭니다. 추측대로 이석원은 생리학적으로 이지안의 아들임이 밝혀졌고 피살자 이지안의 사인은 자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측 목 경동맥에 송곳으로 찔린 자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촛대 꽂이었어요.

메모장의 사내는 여전히 이석원을 잉서원으로 이지안을 잉지안으로 발음하고 있었는데 국밥을 후루룩거리며 그렇게 말하더라고 했다.

-자상? 촛대?

조실은 차를 삼키다 말고 물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촛대에 찍힌 지문은 이지안 금어의 아들 이석원의 것이었고 혈흔은 이지안 금어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촛대로 제 아버지를 죽이고 불을 냈다 그 말이냐?

조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다.

-맞습니다.

-그럴 수가! 그럼 공양주는?

-자상이 없답니다. 이지안 금어가 촛대를 맞고 불에 타자 끌어내려고 하다가 질식사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인데 이석원의 뒤를 쫓고 있겠구나?

-여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걸로 보아 한국으로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명수배를 내리긴 했다는데…. 골치가 아프답니다. 상부에서는 뭐하고 있느냐고 성화고….

호르르 바람 한 줄기가 약간 열린 문틈으로 들어와 주위를 맴돌았다. 조실은 말을 끝내고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나는 그제야 주위를 살펴보았다. 하나같이 말을 잃은 표정들이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조실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이윽고 시선을 들어 누군가를 불렀다.

-자명아!

옆방에서 대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내 스님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제 스물일곱이나 여덟 쯤 되었을까?

-얼마 전에 가져다 놓으라던 공책 말이다.

-예. 큰스님.

-그것 좀 가져오너라.

스님이 나가고 나자 조실스님이 나를 쳐다보았다.

-사실 그 사람 이석원이 떠난 후 방을 치우다 보니까 바랑 하나가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다오.

-바랑?

내가 되뇌었다. 바랑이라고 한다면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 놓고 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다시 돌아오려고 했던 모양이외다. 바랑 안을 뒤져 보았더니 공책 하나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소이다.

-공책? 노트?

내 되뇜이 유난히 컸던 모양이었다. 조실이 말을 끝내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하나같이 못 들은 척 눈길을 피하고 있었다.

그때 스님이 공책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내가 얼핏 보았더니 파리의 에펠탑이 인쇄된 낡은 노트였다. 조실스님이 그걸 받더니 내 앞에다 놓았다.

-한국에서 수사관이 뒤늦게 나왔다고 하길래 어쩔까 했는데…. 한 번 보시지요.

내가 노트를 집어 들었다. 에펠탑이 커다랗게 인쇄된 표지에 누구의 것이라는 이름도 없는 노트였다. 표지를 넘겨보았다. '아디카야의 검을 찾아서' 란 글이 먼저 보였다. 악필이었다. 펜으로 쓴 글씨체가 힘이 넘쳐보였지만 달필이 아니었다.

아디카야의 검?, 나는 되뇌며 읽어보려고 하다가 조실스님을 쳐다보았다.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글자의 조합이 성가실 정도로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 노트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읽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조실스님을 향해 물었다.

스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보신 후 돌려주신다면….

-그러지요. 가는 길에 들러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구려.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천추사원의 조실스님과의 대화는 그 정도에서 끝났다.

일어나는 우리를 보며 문밖까지 따라 나온 조실스님이 목례하였다.

-안녕히들 가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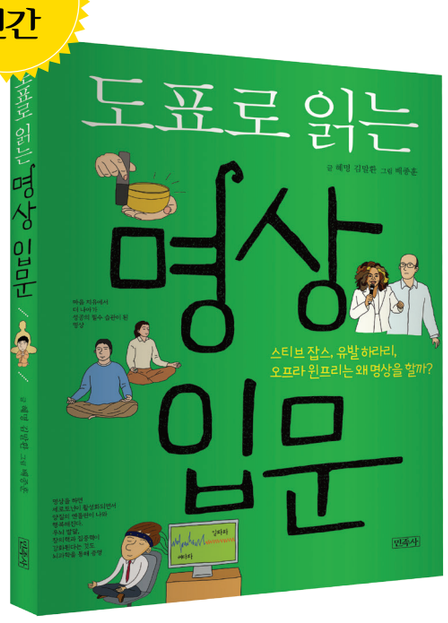
2

사원을 내려와 복사집부터 찾았다. 두 부를 복사해 기자와 소설가에게 주고 원본은 내가 가지고 왔다. 송 서화가는 내가 읽고 난 다음에 읽겠다며 스리나가르로 갈 수 있는 차편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나는 송 서화가의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 볼 때부터 읽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했었지만 한 문장을 최소한 두서너 번은 읽어야 했다. 나름 문장을 맞추고 글자를 어떻게 맞추어서야 이해가 되었다.

〈계속〉

오프라 윈프리는 왜 명상에 열광하는가?

화제의 신간



글 혜명 김달환 · 그림 배중훈 | 192쪽 | 15,800원

"제가 명상을 하면 1000%는 더 나은 사람이 되거든요."
–매일 제 중심을 잡고 저를 위해 명상을 하는 겁니다–

성공의 필수 습관이 된 명상!
스티브 잡스, 빌게이츠, 마이클 조던은
왜 명상에 열광하는 걸까!
뇌과학을 통해 증명된
명상의 중요성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마음을 바르게 보는 메커니즘을 밝혀 심리 작용을 알려주는 마음 입문서!



글 이한기 · 그림 배중훈 | 208쪽 | 15,800원

●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불교의 깊이와 지혜를 담아낸 본격 불교 교리 입문서!



글 김상현 · 그림 배중훈 | 224쪽 | 15,800원

●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붓다의 생애, 가르침, 역사, 계율, 교단 성립이 한눈에!



글 이기영 · 그림 배중훈 | 224쪽 | 13,800원

●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뜻 모르고 독송하던 천수경의 자상한 해설서!



글 김상현 · 그림 배중훈 | 224쪽 | 15,000원

●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를 일상어로 풀어낸 최고의 불교 입문서!



글 김상현 · 그림 배중훈 | 208쪽 | 15,800원

●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등 중요 경전(20종)의 요점을 한눈에!



글 김상현 · 그림 배중훈 | 232쪽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